

K-푸드, 프랑스 미식에 새로운 바람 불어 넣다

aT, K-푸드위크... 한국 식재료 활용한 창의적 메뉴 선보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K-푸드의 유럽 내 인지도와 수출 확대를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에서 'K-푸드위크(K-Food Week)'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식품 특별 홍보주간인 'K-푸드위크'는 프랑스 현지 외식업체들이 김치, 장류, 쌀 가공식품, 주류 등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하고 식당을 찾는 고객에게 이를 선보이는 행사다.

aT는 이번 행사를 통해 셰프들에게는 색다른 한국 식재료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식당을 찾은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식재료와 어우러진 요리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향후 지

속적인 수요 창출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리를 포함한 마르세유, 보르도, 몽펠리에, 스트라스부르 등 프랑스 전역의 24개 외식업체가 참여했다. 프랑스 수도권에 위치한 '르 조르쥬(Le George)' 레스토랑은 18시간 동안 익힌 소고기 양지살을 고추장으로 요리했으며, 생마르탱

운하에 있는 '바인 라드레스(L'adresse)'는 고추장으로 만든 한국식 치킨 버거를 선보였다.

몽펠리에의 '셰드라가르(Chez Delagare)'는 한국식 미트볼을, 스트라스부르의 '브라스리 루이즈(Brasserie Louise)'는 김치와 레몬을 곁들인 떡볶이를, 보르도의 샌드위치 전문점은 김치와 치즈를 결합한 샌드위치를 소개했다. 특히, 행사 기간 연일 만석을 기록한 '빠빠용에코(Papillons & Co)' 레스토랑은 이번에 개발한 비빔밥 카르파초를 정식 메뉴로 추가해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셰프 앙투안(Antoine)은 "고추장을 비롯한 새로운 식재료를 사용해 요리 개발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레스토랑을 방문한 프랑스인과(Francois)는 "막걸리를 처음 맛봤는데, 김치와 함께한 메뉴와 잘 어울려 매우 인상 깊었다"라고 말했다.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프랑스 현지 셰프들이 자발적으로 K-푸드위크에 참여한 것은 우리 식재료가 유럽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유럽 각국의 고유한 식문화 속에서 K-푸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레스토랑 라들리에 하메(L'atelier Ramcy)의 셰프 니콜라(Nickolas)씨가개발한김치와인삼을활용한요리

문진섭 조합장, A2우유 확대 전략 통했다!

'A2+우유' 누적 판매량 8250만 개 돌파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지난해 4월 선보인 프리미엄 'A2+우유'가 누적 판매량 8,250만 개를 돌파하며, A2우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어려운 유업계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유의 핵심인 '고품질 원유'로 승부수를 띄운 문진섭 조합장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A2+우유'는 서울우유가 국산 우유 소비 증진을 목표로 5년간 약 80억 원을 투자해 2024년 출시한 프리미엄 흰 우유다.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에서 분리·집유해 A2 단백질만을 함유하고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등급의 고품질 원유가 특징이다. 또, 목장, 수유, 생산, 제품 총 4단계의 A2검사를 실시하고, 세균과 미생물을 한 번 더 제거하는 EFL(Extended Fresh Life) 공법을 적용해 압도적인 신선도와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A2우유가 소화용이성을 비롯해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임상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되는 등

A2우유의 긍정적 영향이 알려지며, 우유 섭취 후 소화불편감을 겪는 소비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더 좋은 우유'로 호평 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A2+우유'는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200만 개 돌파에 이어 올해 9월 기준 누적 판매량은 8,250만 개를 넘어섰다.

'A2+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장한 노력도 통했다. 현재 ▲180ml ▲710ml ▲900ml ▲1.7L ▲2.3L 등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보관과 휴대 편의성을 극대화한 멸균제

품(170ml)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아이 첫 우유 콘셉트에 맞춘 A2+우유, 시니어 고객을 위한 A2+우유 등 세분화된 고객 취향을 겨냥한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출시 1년 6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8,250만 개 돌파라는 성과는 A2우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제된 국내 우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유의 핵심인 고품질 원유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A2우유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서울우유 제품

국산 우유의 가치 '2025 밀크&치즈 페스티벌' 성료

도심에서 즐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산 우유의 신선함과 품질 경쟁력을 시민이 직접 체험한 '2025 밀크&치즈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높은 만족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경기 안양시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렸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시작된 첫날에 이어, 둘째 날 오전 비가 내렸음에도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뜨거운 참여 열기가 비가 멈추자 축제의 열기가 다시 이어졌다.

올해 페스티벌은 '우유는 신선 식품입니다'를 주제로, 국산 우유가 목장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48시간 이내에 유통되는 신

선식품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로 구성됐다. 교육·요리·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 우유의 신선함과 품질 경쟁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국산 우유와 치즈

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요리·식 프로그램, 우유의 품질관리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만들기 체험, 도심 속 우유카페와 포토존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목장형 자연치즈 경진대회 출품작 전시 및 할인 판매존을 운영해 국산 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했다.



▲우유자조금 제공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온라인'서 쉽게 찾아본다

84종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웹페이지 구축·공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출농산물 84종의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해 웹페이지를 구축, 공개했다.

기존에는 책자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수출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늘어 웹페이지를 개설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디지털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은

국가별·작물별 맞춤 검색 기능이 적용됐다.

사용자가 검색 화면에서 수출대상국가와 수출농산물을 선택한 뒤 검색을 누르면 수출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용도, 적용 병해충, 품목명 등 관련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검색 창에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최적화 화면을 적용해 휴대전화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수출대상

국가의 잔류허용기준이 낮은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농가가 농약을 사용할 때 안전사용 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수출 부적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기술포털 '농사로'▶관심콘텐츠▶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또는 정보무늬(큐알코드)로 접속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수출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농가와 업체,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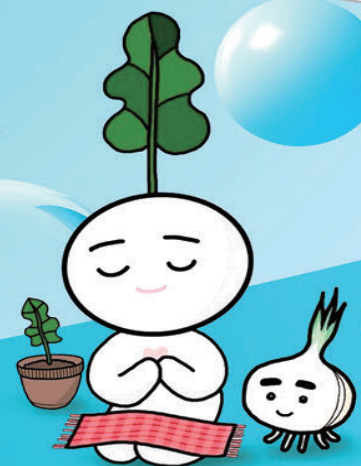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최달순 과장은 "디지털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은 농업인이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해 손쉽게 수출 대상 작물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수출농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손쉽게 만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가락시장을 한눈에!

우리가족 건강밥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농산물 이야기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락시장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www.garak.co.kr

